

배당 지급 절차 변경과 금융ETF

- 금융위원회의 배당 제도 개선으로 2023년 회계연도 기말배당부터 **먼저 배당액을 확정**한 다음, **배당 기준일이 정해짐**. 기업들이 정관 지정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다면 2023년 실적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배당 기준일 변경 가능 → 배당락은 12월 말 특정 하루에서 4월 여러 날짜로 분산(12월 결산 기준)
- ETF NAV의 경우 미수령 배당금을 반영(회계 발생주의 원칙)하며 발생했던 ETF와 벤치마크(지수 기준 가격)사이의 추적 오차가 줄어들 것. 또한 예상 배당금과 확정 배당금 간의 괴리도 완화
- 1) 정관 변경으로 결산 배당 기준일을 3월 말~4월 초로 이연했고, 2)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라면 1분기 배당 기준일은 3월 말 ← 3월 말~4월 초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도기적인 2024년에는 2번(4분기와 1분기)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음
- KOSPI200 금융섹터의 81%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관 변경. 하나금융지주, 신한지주, KB금융은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했고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 → **KBSTAR 200 금융 ETF는 KOSPI200 내 금융지수를 추종. 배당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 예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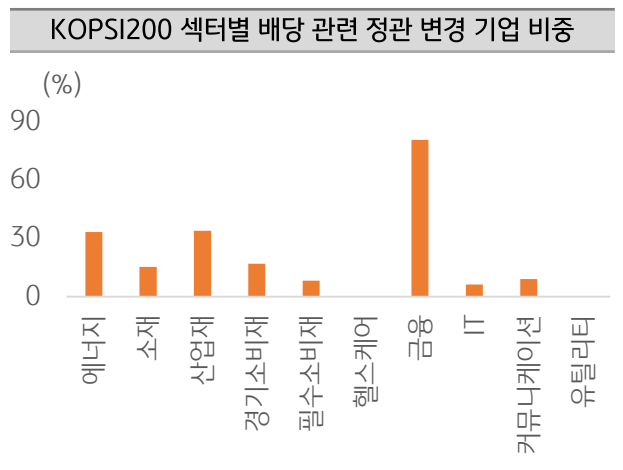
배당 지급 절차 변경 전후



※ 출처: 금융위원회, KB자산운용, 12월 결산법인 기준

KBSTAR 200 금융 ETF TOP 10 편입 종목	비중(%)
KB금융	16.04
신한지주	15.35
하나금융지주	9.95
카카오뱅크	8.15
우리금융지주	7.81
삼성화재	7.04
삼성생명	5.25
메리츠금융지주	5.06
DB손해보험	3.18
카카오페이	2.92

※ 출처: KB자산운용, 2023. 12. 21 기준



※ 출처: FnGuide, 한국투자증권, KB자산운용

※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‘투자광고 2023_1273(다)’

※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,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
※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보수·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금융투자상품<집합투자증권>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※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
※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